



5면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음 12월 22일) 제2949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최고의 119서비스로 '안전·행복 전복' 구현

도 소방본부, 미래 소방발전 청사진 제시

소방 인프라 확대·따뜻한 연대 구축·선제적 예방 강화
정교한 대응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 10개 실행계획 수립

대된다

▲첨단기술 기반 '선제적 예방' 강화

호남권 최초로 공공기관·산업·학계 등 소방 데이터 축적·유동·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현재 전북의 지리·환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 정책 발굴·추진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계절별 안전사고유형 통계를 분석해 기상특보 발령 시(한파·건조·폭염·강풍 등) 화재위험경보를 동시에 발령하는 안전 예보제를 시행,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선제적 재난예방의 현실화라는 성취를 거뒀다

아울러,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의 관제 시스템 접목으로 신고자 음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치정보·신고내용 등에 대한 정확도를 높였다

올해는 DB보강·음성인식 전자학습·재난대응 매뉴얼 탑재 등의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며,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강한 정교한 대응 시스템 구축

전북에는 현재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이 17단지 57개동 있으며, 50m 고가사다리차2대가 배치돼 있지만, 가용범위 한계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70m 고가사다리차를 올해 1월말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입하고, 주요 신도심(고층밀집)에 올연말 배치되면, 고층화재 대응능력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행중인 헬기(BK117B-2)가 기령 28년으로 장기운항에 따른 임무수행에 제한이 있어 금년 9월경 중형급 소방헬기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실종자 수색 등 각종 소방항공 임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19 안전센터에 인명구조사와 중량물 유압장비 등 구조장비를 배치해 분서 구조대 도착 전 초기대응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프구조대’는 ‘21년에 4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7개소를 추가 운영해 연도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농·어촌 지역 등에 균등한 구조서비스를 제공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의 소임에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올 한 해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4개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추진

전북도가 도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전 가치 증진을 핵심 목표로 올해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공원구역 등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원계획을 변경·시행하는 법적 사무다. 이에, 도는 도립공원 4개소(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139.375km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한다

공원계획변경 용역계약은 오는 2월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약 18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지난 21일 리한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동학농민혁명 기념 세계혁명예술전주국제포럼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학혁명과 세계 근대혁명의 만남

제1회 세계혁명예술전주국제포럼

일본 근대혁명기·독일 농민전쟁·러시아 혁명
아일랜드 농민·체게바라 등 문학·예술로 소개

동학농민혁명과 세계 근대혁명을 소재로 한 국제포럼이 전주에서 열렸다. 동학을 예술로 풀어내고 동학의 세계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된 이 포럼에서는 한국과 일본, 영국 러시아, 독일 남미 등 여러 나라의 혁명이 문학과 예술로 소개됐다

(권원기 4면)

전주시는 지난 21일 리한호텔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호 전주시 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의 혁명 문학과 영화’를 주제로 제1회 동학농민혁명 기념 세계혁명예술전주국제포럼을 개최했다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선양사업을 펼쳐온 시는 동학 정신을 세계 근대 혁명의 도시들과 공유하고 동학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이를 일정의 국제포럼을 준비했다

이날은 ‘문명전환기 혁명의 기념과 재현’을 주제로 한 서울대 박병규 명예교수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의 동학농민혁명과 일본의 근대혁명기 문학과 ▲독일농민전쟁과 러시아의 혁명문학·영화 ▲아일랜드 농민혁명과 체 게바라 혁명문학·영화 등 3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학술포럼이 진행됐다. 학술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문병학 시인이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을 발표했으며, 이어 일본 삿포로 대학의 요코사마 고지 교수가 ‘시비료타로와 타올라라 겐을 주제로 박발유신기 일본의 혁명인식과 혁명문학’을 소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포럼은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기념사업을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규명하고 해석하는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혁명의 예술과 문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국제포럼의 주제를 건축과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로 확산시켜 전시와 공연, 영화 등을 결합한 문화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폐는 체 게바라를 소재로 한 문학과 영화를 다뤘다. 이날 학술포럼은 유튜브 ‘전주시 LIVE’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포럼이 끝난 후에는 전주시청 책가도도서관에서 프랑스 혁명을 다룬 영화 ‘뮌헨’이 상영됐다

포럼 이틀째인 지난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일본 근대혁명기를 소재로 한 ‘비람의 검’ 신진조와 우리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녹두꽃’이 각각 상영됐다

시는 이번 국제포럼을 발판 삼아 ▲동학농민혁명과 예술의 접목 ▲동학 관련 서적 번역 등 동학의 세계화 ▲혁명도서관 조성 등 전주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동학 관련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포럼은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기념사업을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규명하고 해석하는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혁명의 예술과 문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국제포럼의 주제를 건축과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로 확산시켜 전시와 공연, 영화 등을 결합한 문화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2021년 7월3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고창고인돌 (2000년12월)



유네스코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2013년 5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고창민소리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고창농악 (2014년)